

# 교양교육으로서 정보활용능력 교육 위상 강화 방안

## An Alternative for the Enrichment of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as a General Education

한 만 성 (Mahn-Soung Han)\*

### 목 차

- |                           |                            |
|---------------------------|----------------------------|
| 1. 들어가기: 융복합 시대의 교양교육     | 5.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
| 2. 교양교육의 의의와 교양과목의 요건     | 5.1 문제 발견을 위한 상황적 질문하기     |
| 3. 교양교육에서 수사학의 위상         | 5.2 학습론 책 선별하여 읽고 서평 쓰기    |
| 4. 정보활용능력과 수사학의 융·복합      | 5.3 실제 도서관 탐방 보고서 쓰기       |
| 4.1 발견법을 이용하는 상황적 활용능력    | 5.4 민주시민을 위한 정보윤리 교육하기     |
| 4.2 탐구를 중시하는 과정중심 활용능력    | 6. 나오기: 향후 과제와 전망          |
| 4.3 편재성에 적합한 활용능력         |                            |
| 4.4 학제성을 공유하는 민주시민의 핵심 교양 |                            |

### 초 록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보활용능력과 수사학의 융합을 통해 정보활용능력 교육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교양과목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를 논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의 성격을 1) 발견법을 이용한 상황적 활용능력, 2) 탐구를 중시하는 과정 중심 활용능력, 3) 편재성에 적합한 활용능력으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이 학제성을 띠는 민주시민의 핵심 교양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정보활용능력의 교육에는 기술 이용 중심의 방법도 있는 등 다양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 부분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실제 프로그램으로는 '문제 발견을 위한 상황적 질문하기', '학습론 책 선별해서 읽고 서평 쓰기', '실제 도서관 탐방 보고서 쓰기', '민주시민을 위한 정보윤리 교육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The major aim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possibility whether the merging of Information Literacy and rhetoric will be able to have essential elements for being a general education subject in universities. The characteristic of rhetorical information literacy (RIL) is organized as follows. Situated literacy using heuristic method, process oriented literacy attaching importance to research, and literacy relevant to ubiquitous environment. So, it is argued that rhetorical information literate citizenry is essential for a modern democratic society. As the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program can be various, for example, technology oriented instruction is needed to be compared. For the practical execution of the RILI program, 'asking situated questions to discover problem', 'selecting and writing review of meta study books', and 'writing visiting report of library', and 'instruction of information ethics for democratic citizens' have been proposed.

키워드: 정보활용능력, 정보활용능력 교육, 수사학, 교양교육, 학습론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Rhetoric, General Education, Meta Study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biblioinfo@jbnu.ac.kr)

논문접수일자: 2014년 10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11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11월 1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51-70,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4.051]

## 1. 들어가기: 융복합 시대의 교양교육

기술과 지식의 융·복합(融複合)은 오늘날 지식·정보사회의 특징 중 하나이다. 정보기술(IT)과 통신기술(CT)의 융합으로 등장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눈부신 발전이 한 예이다. 서로 다르거나 인접한 영역의 기술들이 만나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기술 간의 고유 영역이 붕괴된다. 지식과 학문도 마찬가지인데, 학문 경계를 넘나든다는 뜻으로 '통섭(統攝)'이라는 용어가 주목받기도 한다.<sup>1)</sup>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학에서 익혀야 할 능력의 폭은 넓어진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과 수학적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 인문학적 직관, 도덕적 성찰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시대이다(손동현 2009, 15). 이러한 능력을 위해서는 전문지식 교육과 함께 적절하게 짜인 교양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각 전문 분야의 지식을 폭 넓고 깊이 있는 안목 아래에서 조망하고 연결시켜 주는 '지적 연결지평'은 본래 교양교육의 성취 목표이기 때문이다(손동현 2009, 16).

문헌정보학에서 교양교육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어떤 부분을 들 수 있을까? 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으로부터 출발하여 서지 교육으로 이어졌으며, 현재는 정보 리터러시라는 이름으로도 주목 받는 정보활용능력을 먼저 꼽을 수 있다.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관

이용자 교육은 전공과 관계없이 전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편적 교양교육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찾아내고 적절하게 이용하여 혁신을 이루어낸 정보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정보활용능력의 핵심이라 한다면, 이는 오늘날 모든 대학생의 필수 교양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연구자는 '정보활용능력' 강의를 5년째 해 오면서 정보 리터러시가 일반교양 과목으로 가진 중요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활용능력'의 위상을 대학생 모두를 위한 필수 기초 교양과목으로까지 강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서 '정보활용능력'과 '수사학(修辭學, Rhetoric)'을 융합한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정보활용능력' 교육이 어떻게 필수 기초 교양 교육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를 논증함이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우선 2장에서 일반 교양과목이 가져야 할 조건을 고전적 교양과 오늘날 교양의 의의를 검토하면서 정리해 본다. 3장에서 서양의 오랜 역사 동안 핵심 교양교육 과목의 위상을 자랑해 온 수사학이 어떻게 오늘날 국내 교양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4장에서는 '정보활용능력'이 어떻게 '수사학'과 융합하여 보편적 필수 교양과목의 성격을 만들 수 있는지를 논증하고, 5장에서는 이렇게 융합된 내용의 실제에

1) 최재천 교수가 'consilience'의 번역어로 제시한 '통섭'은 자연과학이 중심이 되어 인문학을 통합하려 한다는 환원주의, 학문 제국주의적인 함의가 있다며 비판과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이인식 외 2014 참조). 그러나 서로 다른 다양한 학문 영역 간의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융·복합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 2. 교양교육의 의의와 교양과목의 요건

우리나라에서 교양교육이 대체로 ‘일반교육 (general education)’의 이념과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이념을 통합한 것으로 이해된다(손동현 2007, 111)면, 교양교육의 의의 또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일반교육’은 ‘전문교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특정 직업인의 양성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양식의 교육이다. 영문학자 도정일 교수는 전문교육 일반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상관없이 교육이 길러주고 함양해야 할 인간의 기본 능력으로 사교력, 판단력, 집중력, 상상력을 들면서 이는 인문적 교양교육의 몫이라고 강조한다(도정일 2014, 42-44). “쓸모 있는 인간은 하나의 재주만 가진 외통수가 아니다.”<sup>2)</sup>라든지 “교육이 이루어지면 차별이 없어진다.”<sup>3)</sup> 등 논어(論語) 구절에서 볼 수 있듯, 이른바 ‘수신(修身)’을 가치로 하는 ‘일반교육’의 사상은 동아시아 교육 전통에서 기본을 이루고 있다. 교양교육에서 한문 고전의 가치를 강조할 수 있는 이유이다.

‘자유교육’은 교양의 영어 표현 ‘liberal arts’가 원래 뜻한바,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에게 어울리는 학예의 교육이다. “실용적 목표를 지니지 않지만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앞이 교양이며, 보수적인 관습으로부터 탈피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이 인문교양교육이다(Kato 2007, 32-33)”라는 서경식 교수의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에게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돌이켜 반성할 줄 아는 능력과 함께 타인의 삶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교양의 본질이 된다(김상봉 2007, 348-351)”는 지적에서는 교양이 가진 감성적 능력이 강조되기도 한다.

한편 오늘날 교양은 인문적인 측면만의 강조를 벗어나 과학적 탐구를 포괄하는 ‘인간학’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우리 시대 최고의 핵심 교양은 바로 과학이어야 할 것(장대익 2013, 11)’이라는 주장에서 보듯, 과학 지식이 교양 교육에 포함되는 것은 합당해 보인다. 사람들이 각자의 전문 직업과 상관없이 서로 교감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이 교양이라면 과학 지식 역시 그 영역 안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 지식은 외적 세계를 향한 인식 지평을 더 넓혀주고, 내적 자기 인식을 더 깊게 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자유와 자립심을 키워주어 정신적 유희라 할 문화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 준다(Fischer 2006, 15)”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현대적 교양교육의 의의를 ‘특정 직업과 상관없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다 함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의무이자 갖출 수 있

2) 子曰 君子不器. 『論語』『爲政』 -12.  
3) 子曰 有教無類. 『論語』『慰靈公』 -38.

는 권리로서의 능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실제 교양과목의 구체적인 내용 요건으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온 손동현 교수에 따르면, 고전적 의미의 교양교육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요소로 사고능력, 정서능력, 실천적 현실대처능력, 공동생활능력, 초월적 가치의 실현능력, 도덕적 자질 등을 열거할 수 있다(손동현 2010, 24). 여기에 과학적 지식과 국제적 활동에 필요한 능력이 현대적 의미의 교양교육에 포함되더라도 고전적인 교양교육 내용의 본질적인 의의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기술과 지식의 융합으로 새로운 나타나게 된 현대적 지적 지형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더불어 요구되는바, 이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손동현 2009, 14-15).

- 1) 첫째,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고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 사고능력이다. 엄청난 양의 정보 가운데서 적실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의 능력, 새로운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의 능력 등이 그 내용이요, 이는 결국 주어진 사태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귀착된다.
- 2) 둘째, 자신의 사유내용을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다.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어적 구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펼침으로써 상대방에게 전하는 능

력이 요구된다.

- 3) 셋째, 세분화된 분야들의 위상을 전체 속에서 기능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 능력과 통찰력이다. 정보사회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문제는 대체로 여러 지식분야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문제다. 이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능력이 없으면 부분에 관한 전문지식도 무력해지기 쉽다. 따라서 연관문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4) 넷째, “이성과 감성을 넘나드는” 능력이 요구된다. 디지털 방식이란 바이너리 코드를 이용해 각종의 정보를 그 질적 성격에 구애받지 않고 수학적으로 연산 처리하는 방식이다. 질적 성격이란 감각적 지각의 대상으로 우리의 감성을 움직이는 것이고, 바이너리 코드로 처리하는 수학적 연산은 정밀한 사고 활동이다. 따라서 이 두 영역을 넘나들 수 있기 위해서는 정서적 감응 능력과 합리적 사고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며 나아가 이 둘이 함께 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교양교육의 내용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교양과목은 과연 현재 존재하는가? 우선 수사학에서 이 가능성을 찾아보도록 하자.

### 3. 교양교육에서 수사학의 위상

수사학은 여러 측면에서 정보활용능력과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개념의 정의를 쉽사리 내리기 어렵다는 점도 그 중 하나이다. 수사학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말 잘하는 기술이다. 고대 로마의 명웅 변가 퀴틸리아누스(30~100)는 수사학을 ‘말을 잘하는 학문(bene dicendi scientia)’이라고 말한 바 있다(Quintilien II, 15, 34).

둘째, 화술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이는 위대한 변론가나 문학가들의 저작과 주석들로부터 인용하는 모방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적 유산을 계승함과 동시에 학습의 기회도 제공해 준다(박성창 2000, 26).

셋째,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논증 이론 및 담론의 발표이다. 기원전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사학을, 논증의 이론 차원에서 『수사학』이라는 저술로 집대성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한 정의의 창시자라고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고대 수사학의 결정판 속에서 다양한 수사학의 이론을 세우고 체계화하였다. 그 중 중요한 것으로 설득의 근원이 되는 3요소, 담론의 3장르 등을 들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각각의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설득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발견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Aristotele 1991, 82[1355b]). 또 담론에 내재하는 설득의 근원이 되는 세 가지 요소로서 ‘웅변가의 도덕적 성격(에토스)’, ‘청중의 감성적 상황(파토스)’, ‘담론 그 자체의 논증이나 개연

성의 논리성(로고스)’을 든다(Aristotele 2009, 59). 또한 수사학의 연설 또는 담론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법적 장르, 의례적 장르, 정치적 장르가 그 3장르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이준웅 2011, 192, 표 3-1).

이러한 개념망 속에서 수사학 연구 분야 또한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 연구자에 따르면 21세기 들어 한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수사학 연구 분야는, 1) 수사학의 정의와 역사, 2) 수사학의 미래, 3) 수사학의 새로운 정의, 4) 한국과 중국의 수사학 전통, 5) 연설(텍스트)의 생산 과정, 6) 수사학과 교육(수사학과 글쓰기 교육, 수사학과 말하기/스피치 교육, 수사학과 전공교육), 7) 수사학과 평가, 8) 수사학과 인접학문, 9) 수사학과 연설문, 10) 기타 등 10개 분야로 나뉘볼 수 있다(이재원 2014, 191-192).

이 가운데 ‘5) 연설(텍스트)의 생산 과정’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고전 수사학에서부터 수사학의 5가지 영역(혹은 4가지)의 규범으로 체계화되었다. 즉 발견(착상), 배열, 문체(미사여구법), 기억, 전달이다. 발견은 문제의 발견이나 주제의 설정과 관련된다. 배열은 생각한 것들을 조리 있고 순서 있게 나열하여 초안을 짜는 일이다. 문체는 문체에 장식을 가하여 매력적인 글이나 연설이 되도록 다듬어 표현하는 일을 말한다. 기억과 전달은 ‘연

<표 1> 수사학 담론의 3가지 유형

구분	사법적 장르	의례적 장르	정치적 장르
주요 영역	재판	축제, 제사, 심포지움	민회, 평의회 토론
주요 목적	시비의 판별	아름다움의 칭송	좋고 나쁨의 결정
관심의 시간적 구분	과거의 잘못	현재의 의례적 행위	미래의 집합적 행동
사회적 기능	정의 구현	가치와 규범 표현	집합적 결의
대표 사례	소크라테스의 변명	페리클레스의 조사(弔詞)	미틸레네 논쟁

기술'로 함께 묶기도 하는데, 발표문이나 글을 암기하여 대중 앞에서 몸동작을 섞어 가며 연설하는 일이다. 이 다섯 가지는 말하기와 글쓰기에서 수사학 교육의 기본 항목이 되어 왔다.

대략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수사학 교육이 교양교육으로 가질 수 있는 위상 및 의의를 손동현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한다(손동현 2010, 36-37).

- 첫째, 어문교육 일반 차원에서 글쓰기든 말하기든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의 교육이 기초교육이 되어 자명하다. 기본적인 리터러시이자 전통적인 리터러시인 것이다.
- 둘째, 주어지는 문제 상황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변적이고, 문제의 성격이나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가능한 많은 자료를 총동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체를 조망해야 하는 요구가 상존한다. 더구나 담론의 3가지 장르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아울러 고려하는 훈련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의 심화와 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 셋째, 장르의 차이와 상관없이, 담론이나 논증의 근거로서 분석되는 '파토스'나 '에토스'의 관점은 인간의 도덕성과 감성, 즉 윤리적 측면의 가치관에 대한 숙고와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가치관은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
- 넷째, 도덕적 가치관의 성찰은 행위에 대한 반성으로 연결되기 마련이어서, 규범에 대한 성찰과 반성적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수사학은 인간의 삶을 유기적이고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는 기억의 역사학, 상상의 문학, 사유의 철학과 분리될 수 없다(손동현 2010, 38)'면, 그 연결 영역을 굳이 인문학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전문분야의 연구라는 중요성 못지않게 그 연구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다양한 대중이나 청중을 고려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라고 해서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sup>4)</sup>

다음으로는 논문의 핵심 부분으로 정보활용 능력 교육이 어떻게 수사학과 융합하여 교양교육으로서 가치와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차례다. 그 실마리는 수사학과 정보활용 능력의 속성이 가진 유사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정보활용능력과 수사학의 융·복합

기술의 편재성(遍在性)이 지배하는 대학 교육 환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리터러시로 기능적·비판적·수사학적 활용능력을 꼽는 한 영문학자는 대학의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이 대부분 문화적, 정치적, 수사학적 틀과 유리된 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그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Selber 2004, 235).

기술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컴퓨터 활용능력 프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금 맥락과 사회의 의미를 감지할 수 있는 사고와 학습을 가로막고, 글쓰기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 교수의 가치 및 위상과 연결된 리터러시 개념을 진작하지도 못

4) 공학 분야에서 수사학 교육을 강조한 박만엽(2010)과 의학 분야에 수사학을 소개한 이영훈(2005)의 논문 참조.

하며, 기술의 발전과 이용에 따라 의도와는 다르게 지속될 수도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 완화에도 도움을 못 준다.

정보활용능력 교육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능적 능력의 전수만을 떠나 좀 더 맥락적이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교양 교육의 영역으로 위상을 확대하고자 할 때, 주목할 만한 언급이다. 또 다른 수사학 연구자도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의 개념을 '상황적 활용능력', '과정 중심 활용능력'과 학문 탐구에서 넓은 의미의 수사학에 '적합한 활용능력'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양쪽 모두 서로의 도움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Norgaard 2003).

정보활용능력이 서로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수사학과 협력과 소통으로 교육 내용의 질적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는 융·복합의 필요성으로 충분하다. 앞선 연구자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두 영역이 가진 유사성으로서 발견법(發見法: heuristic), 탐구성(探究性), 편재성(遍在性), 학제성(學際性)을 확인하여 이로부터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 4.1 발견법을 이용하는 상황적 활용능력

발견법은 'heuristic'의 번역어로 위키백과사전에서 따르면 '문제 해결, 학습, 발견을 위해 최적의 답을 보장하지는 않는 경험에 기반한 기법'을 뜻하며 이러한 방법의 예로는 어림셈법, 합리적 추측, 직관적 판단, 유형화, 상식 등을 들

수 있다.<sup>5)</sup> '찾아내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heuriskein'에서 유래했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비중의 원리를 깨닫고 외쳤다는 '유레카(eureka)'도 여기에서 나왔다. 소크라테스가 잘 이용했으며 산파술(産婆術)이라고도 불리는 문답법과도 연관이 있어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거나 해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방법을 가리키기도 한다. 즉 스스로 문제나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발견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사학을 "각각의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설득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발견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발견법을 강조하는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는 정보활용능력의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정보 요구를 인식하고 적합한 정보를 찾아내고 평가하여 선별한다'는 부분과 매우 닮아 있다. 정보활용능력에서도 발견의 능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말 그대로 '검색의 기술'로만 그친다면 무엇인가가 부족해 보인다. 아무리 빠른 시간에 정보를 많이 찾아낸다고 해서 정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정보에 관한 열 가지 신화 속에서도 언급된바, 정보가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고(Case 2012, 8), 또 정보가 많다고 좋은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Gigerenzer 2014, 71). 인간의 생활 속 문제들은 수학적인 확률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수사학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상황에 대한 고려로 해결하려 한다. 학습자들의 문해력에는

5) [cited 2014. 7. 31.] <<http://en.wikipedia.org/wiki/Heuristic>>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암묵적 지식이 많이 반영되는바,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역사적·사회적·정치적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Norgaard 2004, 126). 즉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을 중요시하고 사회적 관습이나 상황을 강조한다. 이는 웹 검색을 중시하는 정보활용능력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자신이 경험한 정보 요구 상황과 감정적인 맥락에 공명하는 자료가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도, 도서관에는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준다. 인터넷 자원은 역사성이 증발해 있고 문화성 또한 영어 자료가 월등하여, 일상의 맥락과 유리되거나 학문의 다양성을 해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발견법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림셈법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직관의 힘을 보여 주며 논리나 통계적 방법보다 정확한 추론을 도출할 수 있다(Gigerenzer 2014, 378).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상황적 활용능력을 기르도록 한다면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여러 문제를 발견하고 해답을 찾아내는 데 더욱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에 어울릴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정보활용능력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 4.2 탐구를 중시하는 과정중심 활용능력

20세기에 수사학의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한 신수사학에서는 학문적 글쓰기를, '발견한 아이

디어를 전달하기 위한 형식적인 도구로 보기보다는 의미를 생성하고 증개하는 과정 또는 탐구의 매체(vehicle)'로 파악하는 데 더 관심을 갖는다(Norgaard 2004, 127). 하나의 완성된 논문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문이 만들어지면서 학문적 성과가 의미를 갖게 되는 연구와 탐구 과정 전체에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정보활용능력에서 이러한 탐구의 과정에 더 비중을 둔다면, 단순한 완성체로서 논문의 서지 완성이나 각주 달기에 집중되는 형식적 리터러시로 의미가 축소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즉 전체적인 탐구 과정에 중심을 두어 스스로 문제를 찾고 질문할 줄 아는 학습자를 만들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 중심의 활용능력에 가장 근접한 예가 정보활용능력 교육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모델 중 하나인 'Big 6'라 할 수 있겠다. 이 모델은 정보활용능력을 정보 문제의 해결 과정으로 보고 문제의 해결 또는 의사 결정까지를 다음처럼 6단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sup>6)</sup>

#### 1. 과제 정의

- 1.1 정보 문제 파악
- 1.2 필요한 정보의 확인

#### 2. 정보 탐색 전략

- 2.1 사용 가능한 정보원 파악
- 2.2 최적의 정보원 선택

#### 3. 소재 파악과 접근

- 3.1 정보원의 소재(지적 또는 물리적)
- 3.2 정보원에서 정보 찾기

6) 원문은 다음에서 볼 수 있다. [cited 2014, 7. 24.] <<http://big6.com/pages/about/big6-skills-overview.php>>



4. 정보 이용

- 4.1 통합(읽고, 듣고, 보고, 만지는 등)
- 4.2 적절한 정보 선별

5. 종합

- 5.1 다양한 정보원의 정리
- 5.2 정보의 발표

6. 평가

- 6.1 결과물의 판단(효과성)
- 6.2 과정의 판단(효율성)

‘Big6’ 모델은 탐구 과정에 중점을 두어 정보 문제를 극복하고 또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모형으로서 정보활용능력 교육에 적합하다(고영만 2010, 132). 또한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적합성을 판단하는 연구에서도 비중 있는 모델로 쓸모 있게 다뤄지고 있다(배경재 2014). 학생들은 ‘Big 6’ 모델의 과정을 이해하고 정보에 접근하여 선별한 뒤 이용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한 뒤 평가를 내리는 과정을 통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학습 탐구 과정을 관찰하며 인지할 수 있는 메타 인지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4.3 편재성에 적합한 활용능력

편재(遍在)는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번역한 말이다. 편재성은 오늘날 정보사회의 특징을 그 어떤 단어보다 실감 나게 잘 나타내고 있다. 공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어디에서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면서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유비쿼터스’가 거의 상투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공간의 극복이 공간의 철폐(撤廢)

로 이어지고, 이는 오히려 조급성과 산만성을 조장하여 지속적인 사색의 기회를 빼앗아 진리를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이 된다(Han 2013, 71-74, 102-103)”는 지적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수사학에 도움을 얻는 반성적 사고가 필요해 보인다. 단순한 검색은 진중한 사색의 기회를 빼앗아 생각하는 능력을 되레 감퇴시킬 수도 있다. 독일의 뇌 연구 전문가 슈피처는, “디지털 미디어가 기억력을 저해하고 정신활동을 감소시킴으로써 교육 분야의 학습 장려에는 원칙적으로 부적합하다(Spitzer 2012, 316)”고 단언한다. 미국 실리콘 벨리에 모여 있는 정보기술 전문가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충분히 자라기 전까지 최대한 디지털 미디어를 아이들로부터 떼어놓고 키운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수사학은 언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존재한다. ‘수사학의 편재성은 무제한적인 것’이라고 가다머는 언급한 바 있다(Gadamer 1975, 63). 그런데 수사학의 편재성을 시공간으로 확장하면 우리는 오히려 광대무변한 사색의 장소와 공간으로서 도서관이라는 우주(宇宙)와 맞닥뜨리게 된다. 수사학자 노르가르트가 지적했듯이 정보활용능력이 수사학과의 협력 관계를 포기한다면 2500년 이상의 지적 전통을 빼앗기게 되고 글쓰기를 무시한다면 활용능력의 춤을 펼칠 수 있는 명석을 잃어버리게 된다(Norgarrd 2004, 225).

서양의 수사학적 전통이 2500년 되었다고 한다면, 동양의 한자 문화는 3000년 가까이 소급할 수 있다. 문자기록이 보존된 역사시대의 시작은 공식적으로 기원전 841년이다(Kuo 2002, 247). 우리의 정신적 문화유산 대부분이 한문으

로 기록된 사실을 잘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 문 자료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3000년 이상의 고유한 지적 유산을 고스란히 빼앗긴 정체성 모호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고급의 다양한 서적을 소장하여 공간을 극복하고, 인터넷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간을 극복하여 시공간의 편재성을 구현하는 공간이 되는 도서관의 가치가 역설적으로 부각된다. 편재성에 대한 수사학적 사고는 왜 여전히 교육의 기초에서 도서관이 중요한지를 다시 묻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초·중등의 정보활용능력 교육에서부터 학교도서관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송기호 2011, 48)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인다.

#### 4.4 학제성을 공유하는 민주시민의 핵심 교양

2009년 10월 1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정보활용능력과 관련한 흥미로운 선언문을 발표했다.<sup>7)</sup> ‘국가 정보활용능력 강조 선언문’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선언문은 정보시대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 모든 미국인들이 정보활용능력에 익숙해질 필요성을 역설한다.

또 정보를 찾는 능력 못지않게 평가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정보를 탐색하여 찾아내고 진단하는 능력을 금융, 의료, 교육, 기술 등 다양한 일상의 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결론적으로 “현대 민주 사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갖추어 교육 받은 시민이 필수적인바, 미국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찾고 평가하는 데 전 미국의 교육 및 사회 기관이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널리 알려진 대로 수사학은 서양 중세 때부터 7자유 학예 가운데 문법, 논리학(변증법)과 함께 ‘3학(trivium)’의 하나로서 학생들의 필수 기초 교양을 이루었다. 이때 3학이라 함은 각각이 독립된 과목이라기보다 3분야를 서로 연결하며 함께 하나의 원과 같은 학문을 이루어간다고 보아야 한다. 수사학은 애초부터 범(汎)학문적이지 학제적인 성격을 띠었다. 더불어 ‘범교과적 학습능력으로서 정보활용능력의 학제성(송기호 2011, 38-39)’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오늘날 민주사회와 수사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민주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보자. “의사소통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1) 수사학적 문화의 활성화와 2) 공정한 담론경쟁을 위한 의사소통 제도의 확립이라는 두 조건이 필요하다(이준용 2011, 515)”는 전제를 인정한다면, 이는 정보활용능력과 수사학을 조화롭게 습득한 시민이 이를 수 있다.

‘1) 수사학적 문화의 활성화’란 훌륭한 말을 하는 자에게 공동체 차원의 보상이 주어지는 규범과 가치가 확립되어 있음을 말한다. 즉 더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는 자 또는 더 설득력이 있는 자, 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에게 물질적 보상 또는 인정과 영광이 주어지는 관

7) 원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cited 2014, 7, 23.]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presidential-proclamation-national-information-literacy-awareness-month/](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presidential-proclamation-national-information-literacy-awareness-month/)>

행이 확립된 사회라면 충분하다(이준웅 2011, 515-516). 이는 수사학이라는 교양의 세례를 받아 자신들의 운명과 관련된 주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민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인 '2) 공정한 담론경쟁을 위한 의사소통 제도의 확립'은 누구나 자유로운 조건에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공정한 의사소통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뜻한다(이준웅 2011, 515-518). 여기에는 개인의 지위고하, 빈부격차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이 존재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정보를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매체 또는 언론이 잘 마련되어 있음을 뜻할 것이다. 이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과 정보활용능력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의 역할에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각종 매체들이 널리 사용되고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장애가 사라진 듯 보이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은 그 어떤 교양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핵심 역량의 가치를 가질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능력은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 시대를 만드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 5.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4장에서 수사학과 정보활용능력의 협력을 통해 오늘날 정보사회이나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교양의 핵심 역량을 갖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이제는 실제 대학 교양과목의 교육에서 이러한 협력과 융합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 점검해 보려고 한다.

### 5.1 문제 발견을 위한 상황적 질문하기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식사회의 심화와 함께 사회의 변화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제는 답이 정해진 매뉴얼대로 학습하고 교육해서는 갑자기 달라진 상황이나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단순한 정보의 검색을 넘어서서 정보를 창의적으로 이용한 혁신지식이 필요하다(박재운 2014, 44). 이러한 혁신지식을 얻어내는 데에도 발견법을 위한 대화와 질문의 토론 방식 수업이 유용할 수 있다.

발견법의 훈련으로 학생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 시간의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을 '브레인스토밍'처럼 여러 학생들로 하여금 먼저 발표하도록 하며 수업 내용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기 전에 먼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언급이나 의견을 교수가 말하지는 않는다. 문장을 만들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 단어 하나라도 발표하도록 하여 일종의 '마인드맵'처럼 생각 지도를 그려 나간다.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여 모르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더라도 금방 답하지 않고 스스로 찾아내거나 깨달을 수 있

도록 한다. 질문에 대한 답을 후에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낸다면 그 기쁨과 물론이거니와 발견법의 능력도 향상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른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토론 형식의 대화가 된다면 더욱 좋다. 시사적인 소재나 맥락을 중요시하는 질문과 대답이 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적 활용능력을 익힐 수 있는 동시에 학생들의 발표 능력도 키울 수 있다. 운 좋게 발견하는 능력 또는 뜻밖의 발견 능력도 교육과 훈련으로 기를 수 있다(Ueda 2013, 147-148)는 사실을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았다. 다만 온라인 방식의 교육에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며, 면대면 교육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 5.2 학습론 책 선별하여 읽고 서평 쓰기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글쓰기 과제의 도입이다. 정보활용능력 교육과 글쓰기 교육의 연계·협력 방안은, 미국의 경우 논의된 역사도 길거니와 실제로 적용된 예도 많이 보인다.<sup>8)</sup> 여기서는 자료의 선별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도서관 소장 도서의 선택적 읽기 교육과 연계하고, 탐구나 연구 과정을 강조하는 효과도 기대되는 '학습론 책(메타 스터디 북) 읽고 서평 쓰기'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해 본다.

'학습론 책'이란, 학습이나 연구, 탐구 자체를 주제로 삼고 있는 책을 말하는데, 이러한 책들은 대개 학문을 권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어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주제의 책들을 다양하게 소개해주어 학생들 스스로가 선택하여 한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읽도록 하고 서평을 써오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선정된 관련 자료의 서지를 간단한 소개 글과 함께 부록으로 게재하였다.

실제로 여러 전공 분야의 학문 전문가들이 써놓은 이러한 책들의 경우, 범학문적인 탐구 방법의 입문서 성격을 띠기 때문에 특정 전공에 따라 맞추어 책을 선택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학생들의 전공과 다른 타 전공의 저자 책을 읽을 때 여러 학문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타 분과 지식이 어떻게 자신의 전공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학제적 학습 능력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융합 교육의 취지에도 들어맞는다.

## 5.3 실제 도서관 탐방 보고서 쓰기

또 다른 방법으로 실제 '도서관 탐방 보고서 작성'이다. 조를 짜서 여러 명이 함께 도서관을 직접 탐방하면서 자료를 찾아보고 이용해 가며 어떠한 점이 유용하고 또 어떠한 점은 불편한지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역시 한 학기 안에 일정 기간을 두고 제출하도록 한다. 실제로 이 과제를 시행해 본 결과 학생들의 창의적인 보고서 형식이 많이 나왔는데, 시각적 이미지 자료를 동원한 보고서들이 많았고, 동영상으로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

홈페이지 속이나 웹상에서 정보를 찾고 도서

8) 정보활용능력 교육과 글쓰기 교육의 연계·협력에 대하여는 한만성(2011) 참조.

관 서비스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일별하는 것과 실제로 도서관에 가서 어떤 서비스가 있으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차원의 일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몸으로 부딪쳐서 느낀 도서관 서비스의 편리함과 불편함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일은 도서관과의 상호 소통을 활성화하여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물 도서관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미국의 경우 도서관 교육 담당 사서가 정보활용능력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수와의 협력이 논의되고 또 실행된 역사도 꽤 된다(강혜영 1998, 187).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서관 사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러한 여건이 충분해지기 전까지는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강사가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디지털 정보원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소장된 한문 자료를 포함한 동양 고전에 대한 안내와 소개도 필요해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양 고전 속에는 ‘수신(修身)’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교양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도 하거니와, 한자 지식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의성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화적 유산의 계승과 글쓰기의 좋은 전범을 제시한다는 수사학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수천 년 동안 누적된 지혜를 담고 있는 한문 자료의 활용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동양 서지학의 목록학 연구도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5.4 민주시민을 위한 정보윤리 교육하기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발달은 전자 매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편재성을 잘 구현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정보활용능력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교육에 적용하지는 취지의 국내 연구도 나오고 있다(오의경 2013). 그런데 “다다익선의 논리가 주도하는 전자민주주의 환경의 정보 홍수는, 적절한 탐색과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인 공공선을 위한 논의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불투명하게 만들어 버린다(Selber 2004, 64)”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학계의 숙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기술 중심 사고에 의해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는 교육방법으로 읽힐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무작정 전자적 매체 글쓰기를 조장할 일은 아닐 듯싶다. 매체는 이용자의 주제적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한에서 보다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또한 그 이용이 민주시민의 필수 요건이라는 식의 강제성으로 작용할 경우, 이는 역으로 정치적인 강박이 되어 진정한 정치 참여와는 도리어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주도권을 쥐는 기술이냐, 기술이 인간을 이끌어가는냐’이다(Gigernzer 2014, 366). 인간이 기술을 만들어내지만 기술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인간은 맹목적으로 그 뒤를 쫓아다니며 따라가서는 곤란하며 중요한 것은 판단 능력과 분석 능력이다(Han 2014, 195-199). 개인의 의사가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표 2〉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 교육 이론과 교육 프로그램 실제의 관계

수사학적 정보활용 능력 이론(4장)	교육 프로그램 실제(5장)	주요 교육목표(2장)
발견법 (發見法)	상황적 질문으로 문제 발견하기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한 토의식 수업	문제해결능력
탐구성 (探究性)	탐구 과정으로서 정보 검색 연습 학습론 책 선별해 읽기 서평 쓰기 과제	총체적 조망능력
편재성 (遍在性)	실제 도서관 현장 탐방 보고서 쓰기 한문 고전 자료 이용 안내 디지털 매체 이용에 대한 성찰	정서적 감응 능력과 합리적 사고능력의 협력
학제성 (學際性)	글쓰기 등 표절 방지 연습 민주시민에 요구되는 정보윤리 교육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윤리적 이용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쏟아지는 네트워크 속에서 선동적 유언비어와 공익적 사실을 분별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수사학 지식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표현한 의견이나 주장이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는 않는지 살피는 자기성찰을 돕는 윤리 교육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학술논문의 표절 방지 교육 같은 글쓰기 윤리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진실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자들의 업적의 도움을 받되 도둑질하지 않는 독창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끈질기고도 인내력 있는 과정을 바른 인용 방법과 함께 잘 제시해 준다. 이는 전자적 글쓰기에도 확대 적용되어 보다 신중하고 성숙한 정보활용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다. 매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윤리 의식을 가진 시민이 그에 걸맞은 민주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교육 프로그램을 4장의 이

론과 관련하여 표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 6. 나오기: 향후 과제와 전망

이 논문에서는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교양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수사학과의 융·복합을 시도하여 보았다. 교양교육의 의의와 교양교육의 요건을 정리하고 수사학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교양교육 과목으로서의 위상을 우선 점검하였다. 정보활용능력과 수사학의 이론적 융·복합의 가능성은 두 분야가 갖고 있는 공통점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그 결과 발견법을 이용하는 상황적 활용능력, 탐구를 중시하는 과정중심 활용능력, 편재성에 적합한 활용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러한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은 학제성을 가진 민주시민의 핵심 교양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구체적인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문제 발견을 위한 상황적 질문하기’,

‘학습론 책 선별하여 읽고 서평 쓰기’와 ‘실제 도서관 탐방 보고서 쓰기’, ‘민주시민을 위한 정보 윤리 교육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실행에는 강사의 의지와 인식이 중요하며 이는 정보활용능력의 교육 방향을 움직이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보활용능력 교육 방법의 여러 다른 방향들이 존재하는 만큼 어떠한 기준에서 교육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강사의 성향이나 의지의 문제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실체가

주로 글쓰기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만큼 일반 글쓰기 교양 수업에 정보활용능력을 함께 교육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활용능력을 담당하는 강사 또는 사서가 글쓰기 수업에 최소 몇 주 정도 강의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글쓰기 강사와 정보활용능력 강사 또는 사서의 협동 강의 형식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보활용능력이 명실 공히 필수 교양 과목의 위상을 갖추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듯하다.

## 참 고 문 헌

- [1] 강혜영. 1998. 서지교육에서 사서-교수의 파트너쉽 구축에 관한 연구. 『서지학 연구』, 16: 183-210.
- [2] 고영만. 2010. 『정보문해론』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3] 김상봉, 서경식. 2007. 『만남: 서경식 김상봉 대담』. 서울: 돌베개.
- [4] 도정일. 2014. 『쓰잘데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 서울: 문학동네.
- [5] 박만엽. 2010. 공학인을 위한 수사학. 『철학탐구』, 27: 165-193.
- [6] 박성창. 2000. 『수사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 [7] 박재윤. 2014. 『혁신지식: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9가지 지혜』. 서울: 한국경제신문.
- [8] 배경재. 2014. 대학생의 과제해결과정 중 정보적합성 판단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1): 189-206.
- [9] 손동현. 2007. 새로운 교육수요와 교양기초교육. 『교양교육연구』, 1(1): 107-123.
- [10] 손동현. 2009.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방책. 『교양교육연구』, 3(2): 5-22.
- [11] 손동현. 2010. 교양교육에서 ‘레토리케’ 교육의 위상 및 의의. 『교양교육연구』, 4(1): 21-40.
- [12] 송기호. 2011. 국가수준 교육 과정에서 범 교육과정으로서의 정보 활용 능력 위상 강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29-50.
- [13] 오의경. 2013.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보리터러시에 관한 소고: 재정의,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385-406.
- [14] 이영훈. 2005. 의사소통: 수사학의 소개. 『가정의학회지』, 26(11) 별책: 442-445.

- [15] 이인석 외. 2014. 『통섭과 지적 사기: 통섭은 과학과 인문학을 어떻게 배신했는가』. 서울: 인물과 사상사.
- [16] 이재원. 2014. 한국에서의 수사학 연구사 I. 『수사학』, 20: 189-231.
- [17] 이준웅. 2011. 『말과 권력: 레토릭에서 의사소통 민주주의로』. 서울: 한길사.
- [18] 장대익. 2013. 『인간에 대하여 과학이 말해준 것들』. 서울: 바다출판사.
- [19] 『한글논어』. 2012. 이을호 옮김. 서울: 올재.
- [20] 한만성. 2011. 대학생을 위한 정보활용능력과 글쓰기 교육의 연계·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1): 117-133.
- [21] Aristote. 1991. *Rhétorique*. traduction par P. Vqnhemelryck. Paris: le livre de poche.
- [22] Aristote. 2004. *Rhétorique Livre I*. 이종오 옮김. 2009. 『수사학 I』. 서울: 리젼.
- [23] Case, Donald Owen. 2012.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3rd ed. Bingley: Emerald.
- [24] Fischer, Ernst Peter. 2001. *Die andere bildung: was man von den Naturwissenschaften wissen soll*. 김재영 외 옮김. 2006. 『또 다른 교양: 교양인이 알아야 할 과학의 모든 것』. 서울: 이레.
- [25] Gadamer, Hans-Georg. 1975. "Rhetorik, Hermeneutik und Ideologiekritik. Metakritische Erörterungen zu Wahrheit und Methode." In *Hermeneutik und Ideologiekritik*. 3e. Hg. K.-O. Apel. Frankfurt S: 57-82. 재인용. Ueding, Gert. 2000. *Moderne Rhetorik: Von der Aufklärung bis zur Gegenwart*. 안미현 옮김. 2010. 『수사학의 재탄생: 계몽주의에서 현대까지』.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26] Gigerenzer, Gerd. 2014. *Risk Savvy*. 강수희 옮김. 2014. 『지금 생각이 답이다』. 서울: 추수밭.
- [27] Han, Byung-Chul. 2009. *Duft der zeit: ein philosophischer essay zur kunst des verweilens*. 김태환 옮김. 2013. 『시간의 향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 [28] Han, Byung-Chul. 2012. *Transparenzgesellschaft*. 김태환 옮김. 2014. 『투명 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 [29] Norgarrd, Rolf. 2003. "Writing Information Literacy: Contribution to a Concept."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3: 18-24.
- [30] Norgarrd, Rolf. 2004. "Writing Information Literacy in the Classroom: Pedagogical Enactments and Implication."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4: 220-226.
- [31] Qunitilien, *Institution oratoire*, Budé, 7vol. 재인용. Reboul, O. 1989. *La Rhétorique*. 박인철 옮김. 1999. 『수사학』. 서울: 한길사.
- [32] Selber, Stuart A. 2004. *Multiliteracies for a digital ag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33] Spitzer, Manfred. 2012. *Digitale demenz*. 김세나 옮김. 2013. 『디지털 치매』. 서울: 북로드.
- [34] Kato, Shuichi, Seo Kyung Sik and Norma Field. 2005. 『教養の再生のために——危機の時代の想像力』. 이목 옮김. 2007. 『교양, 모든 것의 시작』. 서울: 노마드북스.



- [35] Kuo, Chang Shiang hua. 2002. 『中國人史綱』. 김영우 옮김. 2014. 『백양중국사 1』. 서울: 역사의 아침.
- [36] Ueda, Masahito, 2013. 『東大物理學者が教える「考える力」の鍛え方』. 정지영 옮김. 2014. 『도쿄대 물리학자가 가르쳐주는 생각하는 법』. 서울: 한스미디어.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Hye-young. 1998. "Building the Librarian/Faculty Partnership for Efficiency of Bibliographic Instruction."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16: 183-210.
- [2] Ko, Young-Man. 2010. *Information literacy*. revised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3] Kim, Sang-Bong and Seo, Kyung Sik. 2007. *Meeting*. Seoul: dolbegae.
- [4] Do, Chung-Il. 2014. *Catalogues of useless precious things*. Seoul: MUNKHAKDONGNE.
- [5] Park, Man Yoep. 2010. "The Rhetoric for Engineers." *Philosophical Studies*, 27: 165-193.
- [6] Park, Sung Chang. 2000. *Rhetoric*. Seoul: moonji publishing.
- [7] Park, Jaeyoon. 2014. *Knowledge for Innovation*. Seoul: hankyung bp.
- [8] Bae, Kyung-Jae. 2014. "A Study on the Relevance Judgement of College Students in Problem Solving Proc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189-206.
- [9] Son, Dong Hyun. 2007. "New educational demand and cultural ba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 107-123.
- [10] Son, Dong Hyun. 2009. "New Status of General Education and Projects for its Enrichment."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3(2): 5-22.
- [11] Son, Dong Hyun. 2010. "Position & Significance of Rhetorike Education in Gener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4(1): 21-40.
- [12] Song, Gi-Ho. 2011. "Altern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Information Literacy as Cross Curricula under the National Curriculum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29-50.
- [13] Oh, Eui-Kyung. 2013. "A Study on Information Literacy in Social Media Age: Focusing on Redefinition, Contents and Media of Information Liter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385-406.
- [14] Yi, Yeong-Houn. 2005. "Communication: Introduction of Rhetoric."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6(11) suppl: 442-445.
- [15] Lee, In-Sik et al. 2014. *Consilience and Fashionable nonsense*. Seoul: Inmul.

- [16] Lee, Jae Won. 2014. "Zur Geschichte der Rhetorikforschung in Korea I - In Bezug auf Korean Journal of Rhetoric -." *Korean Journal of Rhetoric*, 20: 189-231.
- [17] Rhee, June Woong. 2011. *Speech and Authority*. Seoul: hangilsa.
- [18] Jang, Dayk. 2013. *Things that Science talked about Human*. Seoul: Badabooks publishing.
- [19] *The Analects of Confucius*. 2012. translated by Lee Eul-Ho. Seoul: Olje.
- [20] Han, Mahn-Soung. 2011. "A Study on the Connection/Cooperation of Information Literacy and Writing Instruction for Academic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1): 117-133.

### [부록] 주요 '학습론 책' 서지

- [1] 『공부』 金烈圭 지음. 비아북, 2010.  
: 한국의 석학이 노년에 들어 정리한 학습론과 글읽기와 글쓰기 방법. 21세기에 필요한 공부법 까지.
- [2] 『공부논쟁』 金大植, 金斗植 지음. 창비, 2014.  
: 대학입시가 인생을 결정짓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전반을 비판적으로 읽어가며 어떤 공부를 지향하며 살아야 할지를 논쟁적으로 검토.
- [3] 『공부론』 金永敏 지음. 샘터, 2010.  
: 철학자가 훑어보는 인문학적 공부의 고갱이. 고전 속에서 끌어낸 한자어와 생경한 우리말이 어우러지는 묘한 글읽기 체험.
- [4] 『공부하는 삶』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양주 지음. 이재만 옮김. 유유, 2013.  
: 프랑스 사제가 이야기하는 삶으로서의 공부, 공부하는 삶. 공부하는 정신으로부터 공부의 실전 읽기, 기억하기, 노트하기 등의 방법까지.
- [5] 『논어 백 가락』 黃秉冀 지음. 풀빛, 2013.  
: 가야금 명인 황병기가 자기완성을 위한 공부 방법론을 정확히 짚은 책이라 말하는 『논어』로부터 끌어올린 삶의 지혜와 공부의 방법론.
- [6]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정민 지음. 김영사, 2006.  
: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공부 방법과 지식정보 판별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정보 정리 요령과 정보 경영의 힌트까지 얻을 수 있는 책.
- [7] 『왜 공부하는가』 김진애 지음. 다산북스, 2013.  
: 서울 공과대학 800명 동기생 중 유일한 여학생으로 졸업한 저자가 말하는 공부를 놀이처럼, 놀이를 공부처럼 하는 놀이공부론.
- [8] 『자기경영노트』 피터 드러커 지음. 이재규 옮김. 한국경제신문, 2003.  
: 광범위한 지식을 섭렵한 경영학의 대가가 일러주는 시간 관리 학습법. 지속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공부법.
- [9] 『지식의 단련법』 다치바나 다카시 지음. 박성관 옮김. 청어람미디어, 2009.  
: 일본의 전방위적 저널리스트이자 제너럴리스트 독서가가 쓴 지식과 정보의 수집부터 이용, 출력 방식의 글쓰기까지 안내한 실용서.
- [10] 『충,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김진준 옮김. 문학사상사, 1998.  
: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으로 역사를 읽어내는 거대사(big history)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류 역사 발전의 지역 간 불균형 원인을 설명하는 책.
- [11] 『평생공부 가이드』 모티머 애들러 지음. 이재만 옮김. 유유, 2014.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전 편집장이자 '독서의 기술'로 유명한 저자가 쓴 평생학습 지도서.  
앞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으로 손색이 없음.

[12] 『학문을 권함』 福澤諭吉 지음. 이동주 옮김. 기파랑, 2011.

: 왜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하는지 젊은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일본의 개화사상가 후쿠자와 유키  
치의 고전. 일본의 근대를 이끈 책이다.